



## 보안성평가단 산업지원팀

# 밝은 정보보호 산업의 미래를 기다리며

하나의 산업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요소가 필요하다. 관련 정책 수립과 업체간의 기술경쟁, 그리고 언론의 관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가 접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이에 따른 수요확대는 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보안산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국내 보안 산업의 현 주소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보안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보안산업의 성장에 대한 관심은 지난 수 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국내 민간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KISA지만, 이와 함께 보안 제품의 기술 향상 및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KISA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보안성평가단 내 위치한 산업지원팀은 국내 보안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바이오인식 정보시험센터와 정보보호 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지원팀은 보안산업 육성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제품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산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보안성평가단 산업지원팀 이시홍 팀장은 산업지원팀의 주요 역할을 이렇게 정리한다. 특정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또 그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과 확대된 수요처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업체들의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산업지원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 “보안제품 테스트, 여기로 오세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안제품을 내놓는 국내 벤더들의 규모는 비교적 영세하고, 또 그로 인해 각 벤더 스스로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보안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산업지원팀의 첫 번째 역할 중 하나는 정보보호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품 연구개발 시 꼭 필요한 고가의 시험장비를 각 보안업체들이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봐요. 때문에 모든 보안 업체들이 각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KISA와 같은 기관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라며 이 팀장은 테스트베드가 마련된 산업지원센터를 가리킨다. 산업지원팀이 운영하는 산업지원센터는 2001년 설립 이후 이용률 면에서 매년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산업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은 보안업체들이 원했고, 또 그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 바이오인식 제품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된 K-NBTC(Korea-National Biometric Test Center) 역시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지원팀이 이뤄낸 또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산업지원센터는 장비 임대료 등을 감안해 볼 때 투자대비 효과 150%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들 산업지원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높아진 각 보안 제품의 완성도 측면은 측정되지 않지만, 산업지원센터의 활용율은 산업지원팀의 서비스가 보안업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 보안산업의 미래, ‘맑음’

산업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테스트 서비스는 산업지원팀 업무의 일부밖에 불과하다. 보안산업 전체가 공동으로 펼쳐나가야 할 마케팅, 해외진출 개척, 기술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이 모두가 산업지원팀 앞에 놓인 수많은 업무들이다. 여기에 국내외 보안제품의 표준화 지원 및 기술자문도 이들 산업지원팀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산업지원팀 앞에 놓인 산적한 업무들은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아직까지 온전한 자생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또 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졌다면, 산업지원팀에게 이처럼 많은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보안 시장과 산업이 기대에 비해 다소 미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안 산업 자체의 미래는 밝다고 봐요”라며 이 팀장은 강조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어렵지 않게 보안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배경에는 국내외적으로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 “지난 4년간 각 선진국에서 기술유출 및 특허유출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보안과 보안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라는 이 팀장은 이런 관심은 결국 수요 확대와 보안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오는 2010년 경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1조를 돌파할 경우, 규모의 경제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이 팀장은 덧붙였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겠지만, 산업의 성장은 수요 창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안산업의 파이프만을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보안이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식의 당위성을 부여하자는 것이죠”라는 이 팀장. 불과 몇 년 후, 훌쩍 커져버린 보안 산업을 바라보며 산업지원팀의 활동을 되돌아 볼 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S**



“국내외적으로 보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등장하고, 또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보안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보안산업의 미래 역시 밝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안성평가단 산업지원팀 이시흥 팀장은 국내외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보안 이슈는 밝은 보안산업의 미래를 예상하게 하는 단초라고 설명한다.